

제1종 전문박물관, 닭 모형 등 1천여점 소장



▲ 지난 11일 산청산골박물관(관장 이상호(본회 부회장))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본회 오세을 회장, 산청군청 허기도 군수를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지난 11일 박물관 등록에 따라 산청산골박물관이 공식 개장을 하면서 박물관의 위용을 드러냈다. 이날 개관식에는 본회 오세을 회장을 비롯하여 산청군청 허기도 군수 등 내외빈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박물관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소재로 장미축제로 유명한 '산골농장(대표 이민희)' 인근 지리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본 박물관이 눈길을 끄는 것은 박물관장이 본회 이상호 부회장(채란분과위원장)이며, 전시품들이 닭 모형, 유물 등 1천여점이 보관되어 전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청산골박물관은 지난 2014년 5월 건물신축을 시작으로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5월 임시 개관을 하였으며, 6월 19일 경상남도 제57호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면서 정식 개관을 하게 된 것이다. 박물관은 총 대지면적 17,893㎡에 건축면적 694㎡를 자랑하며, 1층(373㎡)에 전시관(267㎡), 수장고(37㎡), 자료실(55

m²), 사무실(14m²) 규모로 되어 있다.

전시품을 자세히 보면 유물인 토기·백자·청자 등 192점, 유물의 분청, 용기, 문서 등 400여점, 닭모형과 민속품 등 400여점이 전시 소장되어 있다. 박물관의 특징을 보면 이상호 관장이 양계업에 종사하면서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수집한 닭모형, 닭접시, 닭그림, 닭항아리 등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람료는 무료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은 휴관이며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에 휴관을 하게 된다. 박물관 2층에는 관람객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산골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차와 식사를 할 수 있고 농장에서 바로 생산한 산골란 및 특산품도 판매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박물관 주변에 소나무 분재 등의 조경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박물관 좌측에 돌조각공원과 6월이면 산골농장에 장미가 만발해 볼거리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관장은 “양계업을 하면서 평소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으며, 틈틈이 모아둔 닭모형, 골동품, 민속품 등 1천여점을 보관하기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과 공유하고자 박물관을 만들기로 하였다. 체험학습실에 도자기와 베이커리 체험장을 운영하고 2층에는 닭관련 모형과 그림을 수집해 기획전시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을 위해 작품전시도 계획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문의사항 055-972-7895> **양계**



▲ 경남 산청군 신안면 중촌갈전로에 '산청산골박물관'이 개장되었다.



▲ 박물관에는 백자, 청자 등 유물 192점과 닭 모형 등 1천여점이 전시, 소장되어 있다.



▲ 이상호 관장이 20여년 동안 국내외에서 모아온 닭관련 모형, 그림 등이 다채롭게 전시되어 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